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Two Towels, Chromogenic print, 81.3x101.6cm, 2005

미국 사진작가 알렉 소스(40)의 개인전이 16일부터 강남구 신사동 아이엠아트에서 열린다.

지난해 작가그룹인 '매그넘'의 정회원이 된 소스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가 그의 작품을 참고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년 넘게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을 관찰하며 그곳에 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로맨스를 표현한 '나이아가라' 시리즈와 콜롬비아에서 입양한 딸에게 훗날 선물하고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일상 풍경을 담은 '도그 데이즈, 보고타'(Dog Days, Bogota) 시리즈 등을 선보인다.

 연립뉴스